

도, '농생명산업수도' 실현 한마음

도내 28개 농생명 혁신기관 80여명 참석 성과공유회 개최

전북도와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라승용, 김중훈)(이하 '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부안 변산에서 식품연구원 등 28개 농생명 혁신기관과 위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성과공유회는 올해 기획한 국책사업화 과제와 내년도 발전방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 8기 '전라북도 농생명산업수도 육성' 비전에 맞춰 지난 6월 출범한 위원회는 농생명산업 미래수요를 반영한 정책과 사업발굴 및 기술협력력을 위해 도내 28개 혁신기관 100여명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새만금농생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반려동물·말산업 4개 분야를 중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위원회는 농생명 산·학·연·관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문가포럼, 대



전북도와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부안 변산에서 식품연구원 등 28개 농생명 혁신기관과 위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세미나 및 분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지난 9월 출범하는 등 농생명·바이오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국책사업화과제 9건(1조4,761억원)과 국가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선행연구 4건(1,610억원)의 과제발굴 성과를 달성해 2025년 국책사업발굴의 초석을 다졌다.

위원회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재정비 후 반기별로 28개 혁신기관 중 주관기관을 선정

해 혁신포럼을 개최하고, 기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 특강에서는 '에그테크가 바꾸는 농업의 미래, 전북농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세종대학교 민승규 석좌교수(前 농촌진흥청장)를 초빙해 변곡점에 다다른 세계농생명산업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인사이트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라승용 위원장은 "발굴된 연구과제와 협력방안이 정책에 반영되고 실행되도록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바다를 알기 위해 바다 밖으로 날아오르는 날치처럼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를 선두로 전북의 혁신기관이 농생명산업의 생태계를 더 높고 조망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혁신성장정책관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차별화된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농촌진흥청은 한국양봉협회와 함께 허니데이인 지난 21일 서울 호서직업전문학교에서 '제3회 양봉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올 최고의 양봉요리 '옥석 가리기'

농진청, 양봉요리 경연... 요리요리 '대상'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한국양봉협회와 함께 허니데이인 최근 서울 호서직업전문학교에서 '제3회 양봉요리 경연대회' 본선을 열고 수상자를 가렸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양봉요리 경연대회는 농촌진흥청이 양봉 산물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식품 원료로 쓰임새가 다양한 양봉 산물을 홍보하고자 2021년부터 한국양봉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연대회 참가 신청은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양봉요리 경연대회 누리집(honeyday-cook.com)에서 받았다. 예선은 모두 45팀이 참가했으며, 조리법과 요리 사진을 1차 심사해 요리 부문 7팀, 후식 부문 6팀 등 모두 13

팀이 본선에 올랐다. 송혜영 곤충요리 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출품작을 시식한 뒤 요리의 맛과 창의성,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벌꿀과 벌꿀분을 이용한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 오리 다리 브레이징 등을 채운 콘길리에(파스타의 일종) 요리를 선보인 이동형, 윤지원 팀이 받았다. 부상으로 꿀벌이 새겨진 3백만 원 상당의 금(골드바)이 전달됐다.

이 요리는 벌꿀의 달콤함과 벌화분의 고소한 맛을 오리고기 요리에 접목해 맛과 풍미를 높였다.

/김옥기 기자

농협사료 전북지사, 사료판매 60만톤 달성

15년만에 10만톤 이뤄내

농협사료 전북지사는 지난 20일 개장이래 최초로 사료판매 60만톤이라는 위업을 달성하면서 이를 자축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8년 50만톤을 달성한 후 근 15년만에 10만톤이라는 준중실적을 이뤄내면서 전북축산의 자부심과 함께 지역 축산사업의 성장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기념식 행사에서 농협사료 전북지사장(이하 홍의주)은 오늘의 업적이 직원 및 협력업체의 노력도 있었으나, 농협사료를 믿어주고 전이용 해 주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고 하였고,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한 농협사료 전주지사(이하 김경태)는 앞으로 전북지사가 전북축산 구



농협사료 전북지사는 지난 20일 개장이래 최초로 사료판매 60만톤이라는 위업을 달성하면서 이를 자축하는 행사를 가졌다.

심체로서의 역할과 함께 조합 및 축산농가와 함께 상생하는 지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농협사료는 지난 2월과 8월에

이어 이달 20일자로 사료가격은5.1% 인하하면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시행해왔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개발공,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갱신인증 획득

새만금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정현, 이하 공사)가 근로자와 현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ISO45001 최초 인증을 획득한 이후 2023년 갱신심사를 통과해 최근 ISO45001 갱신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수준의

인증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 및 시스템 이행력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시스템을 갖춘 사업장에만 인증이 부여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국제표준화기구의 ISO45001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경영진의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 안전



역량 강화·확대의 노력을 대·내외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김재훈 기자



"요소수 수급 불안 해소 요소 물량 확보 힘써주길"

송호석 전북환경청장, 도내 요소수 제조업체 현장방문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20일 전북지역 차량용 요소수 제조업체인 (유)아톤산업을 방문하여 차량용 요소수 제조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송 청장은 제조업체 관계자들에게 "지역사회에 요소수 수급 불안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차량용 요소수의 원활한 생산과 요소 물량 확보에 힘써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올 사과·배 생산량 감소

통계청, 2023년 생산량 조사... 사과 가격 크게 올라

올해 사과와 배 생산량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가격은 크게 올랐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2023년 가을 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39만4428t으로 전년(56만6041t)과 비교해 30.3% 감소했다. 이는 2011년 37만 9541t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은 생산량이다.

사과 재배면적은 2만4687ha로 전년(2만5767ha)보다 4.2% 줄어 비교적 소폭이었지만 10a당 생산량이 1598kg으로 전년(2197kg)보다 27.3% 감소했다.

통계청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후 과수 폐원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줄고, 작과수 감소와 병충해 등으로 인한 피해비를 증가로 10a당 생산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생산량이 급격히 줄면서 사과 가격은 크게 올랐다. 지난 10월 사과 소매가격(홍로, 10개 기준)은 3만632만원까지 올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만원가량 높았다.

이후 가격이 하락세에 있지만 평년보다는 여전히 비싸다. 21일 기준 사과 소매가격(후지, 10개 기준)은 2만 8093만원으로 1년전(2만1724만원)과 비교해 29.3% 높은 수준이다.

배 생산량도 18만3802t으로 전년(25만1093t)보다 26.8% 감소했다. 사과와 마찬가지로 재배면적은 8819ha로 전년보다 2.4% 감소했지만 10a당 생산량은 병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 2084kg으로 전년에 비해 25.0% 줄었다.

가을배추 생산량은 124만2408t으로 전년(135만2346t)보다 8.1% 줄었다.

/김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